石洲集 국역 출판과 權韠先生

석주집 권필선생

(역자 : 정민 교수, 한양대학교 국어국문학과)

배를 두모포(豆毛浦)에 대고 신경승(申景昇)의 정자에 올라 벽 위의 시를 차운하다 舟次豆毛浦 登申景昇亭子 次壁上韻

뜬 인생의 고락이 극히 어지러워도 浮生苦樂劇紛然
취사(取捨)야 사람 탓이니 하늘에는 있지 않네. 取捨由人不在天
세간의 참된 부귀 알려고 하거든 要識世間眞富貴
호숫가 작은 신선 시험삼아 보시오라. 試看湖上小神仙
누대 앞의 달빛은 반강(半江)에 비치었고 樓前月色半江水
문 밖의 피리 소리 어느 곳의 배이던고. 門外笛聲何處船
십년 간 분망하여 이 몸 장차 늙어가니 十載奔忙吾欲老
바람 드는 평상에서 쪽잠인들 자겠는가. 肯容風榻片時眠

정공술(鄭公述)의 호정(湖亭) 시를 차운하다 次鄭公述湖亭韻

사촌(沙村)은 물가여서 물이 문에 들어오니 沙村臨水水侵門
이 정자 흰 구름에 가까움을 아끼노라. 獨愛茲亭近白雲
한 마리 새 가는 저편 하늘은 멀고 크고 一鳥去邊天遠大
뭇 산들 다한 곳에 땅은 가로 나뉘었네. 群山盡處地橫分
세간의 득실이야 바둑판 구경이요 世間得失看棋局
몸 밖의 기쁨 슬픔 술에다 맡기노라. 身外悲歡付麴君
바람 안개 눈 아래서 이는 것 허락하며 秪許風煙生眼底
대나무 상 오동 안석 하루를 마치시리. 竹床梧几了晨曛

남계 권준표 前 순천종친회장

팔순연과 자서전 출판기념회

前 순천부시장, 시장직무대리와 순천종친회장을 지낸 남계 권준표(80, 순천. 추밀공파 38世)씨가 지난 12월9일 오전 11시30분 순천로얄관광호텔 별관 4층에서 前 농수산부장관 허상만씨, 현 순천시장 조충훈씨, 박관수변호사, 성균관부관장 박형제씨, 순천지역 각계각층, 친인척, 가족 등 2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권준표씨의 자녀 2남3녀(태환, 두환, 연자, 영희, 정희)들의 마련으로 8순연과 자서전 출판기념회를 개최했다.

이날 MBC 앵커 김병렬씨의 사회로 남계 권준표씨의 약력소개(영상,스라이드)를 했으며, 이어 장남 권태환씨의 가족대표 인사와 내빈 대표인사, 박형제 성균관부관장의 축시 낭독이 있었다. 이어서 5남매가 부모님께 천수를 비는 헌주를 올렸으며 어머님 은혜 축가를 불렀으며, 케익커팅 및 샴페인으로 건배제의 후 오찬 및 흥겨운 여흥이 있었다.

권준표 족장(族長)은 순천시 승주읍 봉덕리에서 부친 권재회옹과 모친 황수엽씨의 5남매 중 장남으로 태어나, 조선대 법정대학 정치학과를 졸업하고 영국 옥스퍼드대를 수료했다. 씨는 서울시 공무원으로 시작해 주요직책으로 전남도지사정책보좌관, 순천부시장, 시장직무대리, 여수·여천시부시장, 추밀공파대종회부회장, 대종회 종무위원, 종앙종친회운영위원, 남포공종회장, 순천향교전교, 충무사강장, 옥천서원원장 등을 지내면서 국가발전과 문사진작에 크게 공헌했으며, 남강공실기 하권 外(7권) 저서와 군정포장, 홍조근정훈장 등을 수훈하고 순천시 화목한 가정상, 전남도 평등부부상 등을 수상하는 등 모범부부의 상징이기도 하다.

(061)743-5151(권준표)

〈권오복 편집위원〉

명당(明堂)

權 寧 翼(본원 부총재)

조선시대에 조상의 묘를 좋은 자리에 쓰기 위해, 남의 묘를 파헤치거나, 강제로 빼앗는 경우가 있었고, 지관이나 술사 등의 말에 따라 몇 차례씩 이장하는 예도 있었다.

영조 때는 파주에 사는 윤득성의 땅에 용주의 묘를 쓰기 위해 인근 1백여 호의 집을 강제로 철거하여 백성들의 원성을 산 일이 있었다. 물론 호조에서 철거비를 민가에 지급하긴 했지만, 길지(吉地)라는 이유로 백성들의 터전까지 빼앗은 것은 드문 예였다. 이처럼 명당에 대한 지나친 집착은 예나 지금이나 개인의 욕심과 풍수에 대한 그릇된 믿음에서 기인한 것이다.

광해군이 즉위하던 해에 대구부사(大丘府使) 정경세(鄭經世)가 올린 상소문에는 당시의 이런 현실을 개탄하는 내용이 들어 있다. 성인께서 단지 "선한 일을 하면 온갖 상서로운 일이 생기고 악한 일을 하면 온갖 재앙이 생긴다. 선을 쌓은 집에는 반드시 많은 경사스런 일이 있게 되고 악을 쌓은 집에는 반드시 많은 재앙이 있게 된다."하였으니, 사람의 재앙과 경사 그리고 화와 복을 어찌 죽은 뒤의 장지(葬地)가 영향을 미칠 수 있겠습니까? 이것이 이른 바 "세상을 미혹시키고 백성들을 속여 인의(仁義)를 막히게 한다."는 설이니, 이치를 아는 군자가 말할 것이 이닙니다. 가령 술가(術家)의 말대로 낱낱이 들어 맞는다면 이순풍(李淳風)과 곽박(郭璞)의 무리들이 스스로 천하에서 제일가는 길지(吉地)를 잡아 그 자손들을 대대로 왕후장상(王侯將相)이 되게 하였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의 후손 중에 현달한 자가 있다는 말을 듣지 못했으니, 분명히 그것은 괴상하고 헛된 소리로 믿을 수 없는 것입니다.

정경세는 풍수설을 처음부터 믿지 않고 었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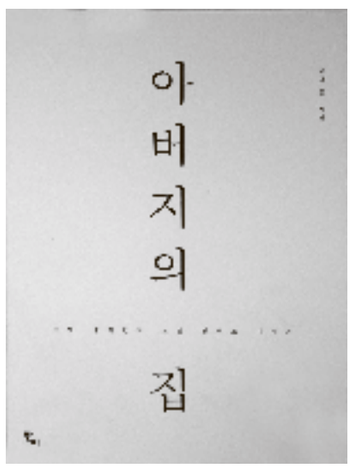
화와 복은 사람이 한 행동의 결과로 나타나는 것이지, 묘의 위치에 따라 화복이 결정되는 것은 아니라고 보았다. 그래서, 당나라 이순풍과 곽박의 예까지 들어 풍수의 논리를 부인한 것이다. 정경세는 4백 년 전에 당대의 많은 사람들이 신앙처럼 따르고 있던 풍수에 대한 관념과 그 폐해를 지적하였다.

그러나, 오늘날에도 여전히 명당에 대한 믿음은 사람들의 의식 가운데 자리 잡고 었다. 최근에 풍수를 학문으로 연구하고 있는 일부학자들의 견해에 따르면 우리 국토 중 명당은 극히 일부이고, 대부분이 길지가 아니라고 한다. 그리고 소위 말하는 명당은 개인의 욕심과 노력으로 얻을 수 었는 것이 아니라고 한다. 즉, 욕심이 동하면 좋은 기운은 숨어버리기 때문에 눈에 잘 보이지 않는다는 것이다.

〈다음호에 계속〉

■ 신간안내

'아버지의 집' 권산씨 발간



경북 봉화의 300년 된 고택 송석헌(松石軒·중요민속자료 제249호)은 영남지방 사대부 저택의 면모를 고루 갖춘 가옥이다. 고택과 그 집에 살던 이의 이야기를 담은 책 '아버지의 집'(고택 송석헌과 노인 권헌조 이야기)의 책이 지난해 11월25일 반비(刊), 지은이 권산으로 발간됐다. 책의 내용은 332쪽으로 첫 번째 노인과 집은 하나였다(오래된 집, 오래된 습관과의 만남), 두 번째 아름다운 뼈(집수리와 몸 수리), 세 번째 못난 나무가 마을을 지킨다(권헌조 옹 가시는 길에), 동애(휘 헌조)옹의 연보 등을 일목요연하게 묶어 집필했다.

한편 故 동애(東崖) 권헌조(權憲祖, 1930~2010, 봉화. 검교공파 사복재)옹은 봉화군 재산면 동면리에서 1남 4녀 중 장남으로 태어났다. 4~5세부터 조부(휘 종도公)에게 가학(家學)으로 글과 예를 배웠으며 이어 1944년 집안 어른들과 함께 8대조부터 지켜온 고향 선돌마을(봉화군 봉화읍 석평리)로 돌아와 정착했다. 슬하에 6남매를 두었으며, 장남 권동재씨는 대학시절 조선시대에 편찬되었다가 유실된 옥편의 후반부를 모필로 복구할 만큼 재능이 뛰어났다. 1953년 조부(휘 종도公)이 별세했다. 조부는 젊어서부터 퇴계문집을 교정할 수 있는 유일한 학자로 꼽힐 만큼 영남지역에서 이름이 높은 학자였다. 이런 조부에게서 글과 예를 배운 휘 헌조옹은 덕망이 높아 배움을 구하러 오는 제자들이 많았다. 1970~1980년대에 안동권씨 시조할아버지 서원인 운곡서원 제향에 참제하러 경주를 방문했으며 이후 경주, 밀양, 안동을 가끔씩 방문해 가르침을 구하는 많은 사람들을 만났다. 선돌마을로 찾아오는 이들에게도 틈틈이 유학을 가르치고, 한문을 가르쳤으며 또 여러 서원의 원장으로 위촉하는 망기를 60여 통 이상 받기도 했다. 91년 아산재단 효자대상을 받았으며 92년 선친(휘 정선옹)이 별세했으며 학방을 하는 등 학문에 조예가 깊었다. 99년 모친 금맹교씨가 별세했으며, 같은 해 부인 류종고여사가 향년 77세로, 또 2010년 12월13일 향년 83세로 (휘 헌조옹) 작고하셨다.

생전 헌조씨를 기억하는 이들은 제일 먼저 온화하고 착한 성품을 꼽고, 다음으로 검소하며 부지런한 습성을, 마지막으로 높은 학문을 칭송한다. 그 외에도 고인(故人)은 밭고랑을 하나 파도 반듯하게, 장작을 패고 쌓아도 빈틈 하나 없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도 재주가 뛰어났다. 특히 목공에 취미가 있었고, 제기도 직접 정성껏 만든 것을 사용했다. 또 문재(文才)가 뛰어나 이야기를 기억하고 가공하고 만들어 들려주는 일을 즐겨하였다.

권옹은 이 시대에 존재하는 마지막 선비로 통하며 한문학(漢文學)을 해서 마지막 선비가 아니라 그의 일상이 유교의 삶(生)이었다. (054)672-0034(권동태) 〈편〉

■ 역사기행

과거(科擧)길 문경(聞慶)새재

▣ 향촌 **권 오 창** (국민건강보험공단 자문위원)

새재(鳥嶺)는 경상도 문경에서 충청도 충주로 넘어가는 백두대간(白頭大幹)의 영남대로(嶺南大路)상의 꼭대기에 있다.

조선시대에는 영남지방과 기호지방간의 경제 사회 문화를 교류하는 통로였고 군사적으로도 주요한 전략 요충지였다.

또한 이 길은 한양으로 가서 과거(科擧)를 보던 선객들의 과거길이였고 민초(民草)들의 삶의 애환이 서려있던 길이다.

새재의 어원은 이곳이 고산준령이기 때문에 새(鳥)가 날아서 넘기 힘든 큰 재,억새풀(草)이 우거져서 새재, 높은 하늘과 아랫재와 사이(間)재라고 하여 새재, 그리고 새(新)길을 낸 재라고 새재라고 불렸다고 하는데 모두가 맞는다고 볼 것이다.

이 잿길은 조선태종 때에 영남대로가 개척되면서 이 길이 보편화되었다.

이 길을 충주쪽에서 걸어올라가면 제일 먼저 영남 제3관문인 조령관(鳥嶺關)을 통과 할 수 있는데 1708년(숙종34년)에 축성한 관문이다. 여기서 용어의 정의를 볼 것 같으면 관(關)은 국경이나 요지의 통로에 두어 통행하는 사람과 물건 등을 조사하는 곳이고 관문(關門)은 적(敵)을 막기 좋은 곳이나 경계에 세운 문이다.

조령관은 충청도와 경상도의 경계지점 일뿐만 아니라 축성의 시발점이 되기도 한다.

이곳으로부터 영남대로에 들어서서 험준한 내리막길로 장원급제길을 따라 1.2Km를 걸어서 20분정도가 되면 동화원터에 다달으고 여기가 낙동강 3곳의 발원지 중의 한 곳이 되는 초점이고 색시폭포와 아리랑비석 조곡약수터에 오면 영남 제2관문인 조곡관(鳥谷關)에 도착한다. 동화원터에서 이곳까지는 2.3Km인데 약20분 소요된다.

제2관문을 지나며는 조곡폭포가 나오고 본격적인 원류인 새재계곡이 흘러 화강암석 암반계곡인 용추폭포가 내리쏟는다. 이 곳 화강암반 한 가운데 소(沼)가 형성되어 용추가 되었으며 암수 2마리의 용이 암반을 뚫고 승천하였다는 전설이 있으며 그때에 남긴 용의 비늘자욱이 선명하게 암반에 찍혀 있다.

여기서 내리막길 1.5Km를 약25분에 걸쳐 내려오면 교귀정(交龜亭)에 이르고 조령원터 맞은편 주막집 마당바위에 닿는다.

교귀정은 경상감사가 도임(到任)하고 이임(離任)할 때에 관인(官印)과 업무 인계인수를 하던 장소이다.

용추계곡의 맑은 물이 흐르는 정자위에서 따나는 사람과 오는 사람의 심경을 짚어 볼 때에 목민관(牧民官)의 옛 정취를 느끼는 한편 흥겹고 쓸쓸한 일면이 있지 아니하였을까 하는 점도 헤아려본다.

교귀정을 지나 주막을 건너다 보면서 마당바위를 뒤로한다. 주막은 예부터 행인을 위한 식음을 제공하고 가파른 고개길을 오르다가 잠시 쉬어가는 장소였으나 지금은 옛 그장소를 복원하여 등산객 관광객을 위한 시골풍의 먹거리 장소로 되고 있다.

주위 산간 물푸레나무가 울창하고 단풍나무 소나무 참나무 등이 우거졌으며 쳐다보면 하늘만 보인다. 이 곳의 물푸레나무는 연장자루로 박달나무는 다듬이 방망이로 유명하게 되었으나 현재는 어느 곳에서나 다듬이 소리를 들을 수 없다.

옛날에 이 고개길을 가자며는 한 사람 두 사람은 갈 수 없고 많은 객(客)을 모아서 집단적으로 이 길을 갔다고 한다. 왜냐하면 새재길은 산적(山賊)들이 출몰하여 금품을 빼앗고 통과세금도 불법으로 징수하였다고 하니 그럴만도 하다.

주막을 뒤로 하고 마당바위를 지나면 조령원터가 나온다.

조령원터는 나라에서 경영하였던 국영숙박장소이다. 지금은 객사는 없어져 돌담으로 둘러쌓인 터만 남아있다. 언젠가는 복원하여야 될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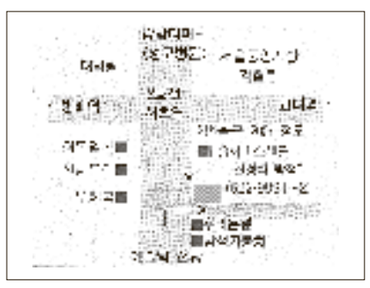
조령원터에서 1.5Km 약 25분정도 내려오는데는 길 옆으로 수로 시설을 하여 놓아서 자연경관과 어울어지는 맑은 물줄기가 소리내어 바위에 부딪히며 흐르는 계곡물은 수량이 많아지고 물소리 바람소리 산새소리에 빠져들면 이 곳이 별천지(別天地)이요. 도원경(桃源境)이다.

〈다음호에 계속〉

서울 청·장년회 신년회 안내

서울 청·장년회 신년회 모임을 아래와 같이 하고져 하오니
많이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일시 : 2013년 1월10일(목) 오후 6시30분
▲ 장소 : 락정한정식(☎ 02)522-9991~2)
(2호선 서초역②번출구 200M지점
가나원식물건물지하)
◆ 회장(권혁창) : (02)3435-6565,
010-3680-5057
◆ 총무(권오준) : 010-3261-2570
◆ e-mail : koj0571@hanmail.net / 인터넷 : www.andongkwon.net



2013년 1월 1일

서울청·장년회 회장 권혁창

알립니다! 즐거운 희소식

일도 철학원 작명 개명 상호 전문

(30년 전통을 자랑하는 역술인의 명예)

타 작명소에서는 20~30만원을 현재 받고 있는 실정인 바 본인은 도봉구 강북구 노원구 성북구 동대문구 주민과 전국 안동권문 전국 국가유공자 직계가족을 대상으로 작명·개명을 10만원에 할인해 드립니다. 단 유공자 직계는 유공증(제시) 사본을 제출해야 합니다.(서울 지하철 4호선 쌍문역 4번출구 앞 100미터 지점(2층)에 위치)

문의 02)987-3265, 010-7308-6896

국가유공자 일도 원장 권 영 섭

세무법인 和仁

◎ 세무상담, 세무신고대리, 기장대리
◎ 양도소득세, 상속세, 증여세 상담 및 신고대리
◎ 법인설립, 법인전환, 각종 세무컨설팅

대표 / 세무사 권 혁 창

본 점
서울특별시 강서구 외발산동 427번지
서울특별시 농수산물공사 강서지사 501·2호
TEL (02)2640-6565 FAX(02)2640-6569

MObile : 010-3680-5057
E-mail : fax21@yahoo.co.kr

동부지점
서울특별시 송파구 가락동 청과물시장 3층 41-1호
TEL (02)3435-6565 FAX (02)3435-6568